

# 조계사 주지 인사 갈등 봉합

주지 임명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조계사 사태가 조계사 부주지에 토진 스님을 임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신임주지 임명 철회를 요구해 온 조계사 신도회는 총무원장스님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12월 2일, 대응전에서 108배 참회를 한 후 정근시위를 회향했다. 신임주지 원화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3일 조계사 무소 접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전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4일 서울 수곡사 주지로 임명됐고, 전 수곡사 주지 토진 스님은 조계사 부주지로 내정됐다. 11월 13일 주지임명 발표 이후 20여 일만에 갈등은 수습됐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해 우려를 더했다.

우선 이번 논란이 결국 주지임명을 둘러싼 계파간의 '자리다툼'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강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1월 13일 조계사 주지에 원화 스님을 임명한 직후인 15일에는 무차회 소속의 노현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이 '총무원장 옹위 및 총무부장 해임'을 촉구하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조계사 신도회도 주지임명 철회와 조계종이 국제

## 토진 스님 부주지·원담 스님 수곡사 주지로 '계파간 나눠먹기식' 인사 비판 목소리도

선센터를 건립키로 한 조계사 소유의 신정동 부지 문제를 지적하며 11월 16일부터 정진시위를 벌였다. 이에 조계종 정책모임인 무차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집 요구는 하루 만에 철회됐다. 23일 조계종 총무원과 무차회가 '조계사 부주지에 토진 스님을 임명하고 전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수곡사 주지에 임명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종회 소집요구를 철회한 것이다. 단식 중이던 노현 스님도 이날 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단식을 중단했다.

결국 '사찰운영위원회 정상화' '주지 임기 보장' 등을 요구하는 조계사 신도회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계파간 '나눠먹기'로 끝을 맺은 꼴이 나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이에 대해 "정치적 야합으로 승가개혁정신의 맥을 끊었다"며 비판했고, 실천승가회는 "인사 문제

에 책임을 느끼지만 아랍을 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신도회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관철됐느냐는 것이다.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회장은 "사찰운영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지스님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사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원한다. 또한 총무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주지스님은 실질적인 권한을 부주지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신도회의 요구를 밝혔다.

총무원과 신도회는 수차례의 논의를 벌인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원화 스님은 12월 3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인사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듯 보였다. 이 자리에서 원화 스님은 ▲신정동 국제선센터 운영에 조계사 신도회 참여 보장 ▲필요할 때마다 사찰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약속했으나, 신도회가 요구해 온 '부주지에 인사·재정권 등을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말에 없는 사항이므로 공식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인사논란의 원인에 대해 "신도들이 직영사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갑작스러운 주지인사와 사찰운영위원회의 무력화로 사찰운영에 불안감을 느끼는 신도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지 주목된다.

여수령 기자

### Tip 직영사찰이란

조계종 중핵 '직영사찰법'에 따르면 직영사찰이란 합은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종단 소속 사찰을 말한다. 분규로 인해 사찰운영이 마비되거나, 사찰 재정이 비정상적인 경위로 유실되거나 재정이 심히 악화된 경우 혹은 반대로 재정이 극히 우량해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총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영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총회의 승인을 얻어 직영사찰을 지정 혹은 해제할 수 있다. 직영사찰에는 관리인을 임명·파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주지 임기 연한(4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조계종 홍보팀 신설 등 조직 개편

### 법률자문 기능 강화·종합 민원실 축소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홍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12월 5일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8면>

기획실 내에 신설된 홍보팀은 홍보역량과 언론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종단의 의지를 보여준다. 율한해 신정아 사건으로 촉발된 언론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에 대해 종단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을 확충해 '홍보팀'으로 확대·재편한 것이다. 현재 홍보업무 맡고 있는 2인과 신규 채용 인력 2인을 더해 총 4인으로 구성된다. 홍보팀은 앞으로 언론모니터링, 대 언론 홍보지원을 비롯해 왜곡 보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중앙총회에서 통과된 2008년 예산에는 홈페이지 정기 개편과 방송미디어 강화를 위한 홍보예산 5500만원이 증액된 바 있다.

### 재무부는 기존의 재무팀을 재무회계팀과 재산관리팀으로 직제를 나누고, 총무부에 편제되어 있던 기업관운영팀을 재무부로 소속을 이동했다. 또한 그간 공식으로 있던 기획실 법무전문위원실 자문변호사 1인을 총원해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조계종은 올해 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문을 연 '종합민원실'을 축소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실은 폐쇄하고 승적 및 신도증 발급, 전화업무, 우편물 관리 등은 관련 부서로 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총무원은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을 올해 1억1602만원에서 내년에는 9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상태다. 총무국장 혜경 스님은 "업무량에 비해 볼 때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공간부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민원실 운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명세서 및 전화업무 등은 계속되는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 금강대 대학원 석박사과정 모집

천태종립 금강대(총장 석남승)가 일반대학원을 설립하고,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설학과는 사회복지불교학과 불교학·사회복지학 전공이며,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20명, 박사과정 5명이다.

불교학 전공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

지원사업(HK)에 선정됨에 따라 대학원생들의 연구 참여는 물론 장학혜택이 주어질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학 전공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원서는 금강대학교 홈페이지(www.ggu.ac.kr)에서 다운로드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041)731-3050 김주일 기자

### 관음사 주지후보에 원종 스님 선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후보에 원종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12월 7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원종 스님(관음사 부주지·사진)은 총 32명 투표인 중 29표를 획득해 주지후보로 선출됐다. 광관 스님은 2표, 진아 스님은 1표를 얻었다.

당초 관음사 주지후보에 4명의 스님이 입후보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보

연 스님에 대해 승랍 미달로 주지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정해 후보에서 제외됐다. 보연 스님은 5일 총무원에 승랍 정정과 산중총회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입후보자 스님들은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앞에서 ▲부명 선거 이행 ▲상호 비방 및 금품 배포 금지 ▲선거 결과 승복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선거 이행 서약서'에 서약한 바 있다.

여수령 기자



마곡사 신임 주지 법용 스님이 12월 7일 열린 진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진산식 봉행

####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부대중 등 1천여명 참석

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 24대 주지 태산당 법용 스님의 주지 진산식이 12월 7일 봉행됐다.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국회정각회장 이혜봉 의원,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준원 공주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법용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마곡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와 만공 선사 그리고 그

법을 이은 율음 선사의 정신이 서려 있는 도량"이라며 "대 도량의 주지소임으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사부대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역대 조사스님들의 뒤를 이어 새로 주지소임을 맡은 법용 스님이 마곡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승가대중의 화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혜철 총정지서장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어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어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어론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충청지사: (043)732-5560 광주지사: (062)268-1508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03-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02-2004-8279

현대불교 후원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대법회

###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광대무변한 불법 광명과 제불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불은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 불법을 널리 흥포하고 불교정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종의 가치를 세웠습니다.

특히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종단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종단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이에 창종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전국 대덕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 일시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2월 14일 11시

### 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 2동 529번지 쌍정웨딩홀

### 문의

창종주 054)632-2799 / 011-228-7813  
총무 031)883-1506~7 / 011-338-1521

충분산: 경북 영주시 인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창종주: 해상  
창종위원회: 관도 해명 금담 해광 법광 수암 지공 벽암

증명: 각 종단 증명 예하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3조. 개인 사찰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제4조. 개인 사찰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 교통편 (쌍정웨딩홀 방향)

- 시내버스노선: 대전역: 221, 720, 726, 829 고속터미널: 640, 103(좌석) 판암주공5단지 하차: 829 판암주공4단지 하차: 720, 726, 221, 103(좌석) 판암근린공원 하차: 640, 221, 720
- 지하철이용: 판암역 3번 출구에서 도보5분거리
- 고속도로(판암 IC에서 2분거리): 서울→청원→신안→대전→판암IC진입 충남→광주→논산→계룡→서대전(남부순환도로)→우주, 진주지역 대전고속도로 이용 판암 IC진입

\* 대전역을 이용하실분은 동광장을 이용하세요. 쌍정웨딩홀 041271-1908